2019
Vol. 4
통권 제10호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INSIGHT

세종인사이트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RESEARCH
INSTITUTE 2019 Vol. 4

CONTENTS

03 세종시 컨벤션센터 건립 방안 | 김 성 표 연구위원

08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 및 운영 방안 | 남 영 식

13 세종시 저출생 대응 정책 진단과 향후 과제 | 최 성 은

세종시 컨벤션센터 건립 방안[1)]

김 성 표 연구위원 |

Ⅰ. 세종시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

-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국제회의 분야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유치 마케팅과 시설 투자 증가로 국제회의 유치 경쟁 더욱 치열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제회의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 세종시 차원에서는 3대 성장산업으로 공공행정 연관 산업, 지식 · 문화 · 정보 · 예술 산업, 스마트시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
- 또한 세종시는 행정기관과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관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회의와 컨벤션 등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세종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인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 필요
-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행사개최 건수는 2015년 478건에서 2018년에 637건으로 159건(33%) 증가
  – 입주 부처와 연구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률이 매년 증가
- 주최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71.6%, 공공기관 15.2%, 지방자치단체 7.5%, 민간부문이 5.7%를 차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행사개최 건수 (단위 : 건)

구 분	일평균 개최수	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민 간	공공기관
2018년	1.6	638	71.6%	7.5%	5.7%	15.2%
2017년	2.4	635	68.7%	7.4%	18.4%	5.5%
2016년	2.2	587	68.3%	20.6%		
2015년	1.8	478	55.9%	20.7%		

자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내부자료

- 행사유형별로 보면 국내회의 85.2%, 행사 8.6%, 전시 3.3%, 국제회의 1.6%, 연회 1.3%로 구성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행사유형별 개최 건수 (단위 : 건)

구 분	계	국내회의	국제회의	연회	전시	행사*	기타*
2018년	637	85.2%	1.6%	1.3%	3.3%	8.6%	0.0%
2017년	635	80.5%	1.9%	8.2%	4%	5%	0.4%
2016년	587	78.9%	3%	7.6%	5.4%	4.9%	0.2%
2015년	478	79%	2.6%	6.7%	5.6%	5.5%	0.6%

자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내부자료

1) 김성표(2019), '세종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방안'의 연구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세종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

세종시 컨벤션센터 건립 방안[1)]

II. 국내 컨벤션센터 현황 및 사례

-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7개의 컨벤션센터가 있는 것으로 조사
- 개관일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COEX가 1988년에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2014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경주 HICO, 군산 GSCO가 설립되었으며,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는 2015년에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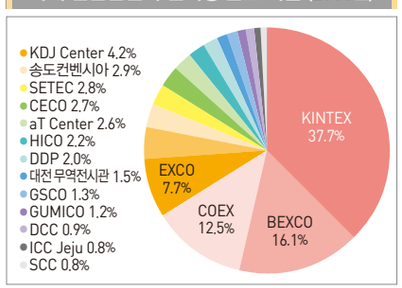
국내 컨벤션센터 현황(2016년) (단위 : m^2)

지역	컨벤션센터	회의장 면적	전시장 면적	개관일
서울	COEX	11,123	36,007	1988년
	SETEC	1,093	7,948	1999년
	aT Center	657	7,422	2002년
	DDP	1,508	5,755	2014년
부산	BEXCO	8,351	46,380	2001년
인천	송도컨벤시아	4,020	8,416	2008년
고양	KINTEX	13,303	108,483	2005년
대전	DCC	4,064	2,520	2008년
	대전 무역전시관	–	4,200	1995년
광주	KDJ Center	4,313	12,027	2005년
제주	ICC Jeju	9,133	2,395	2003년
창원	CECO	2,784	7,827	2005년
대구	EXCO	7,436	22,159	2001년
구미	GUMICO	953	3,402	2010년
군산	GSCO	1,825	3,697	2014년
경주	HICO	3,421	6,273	2014년
세종	SCC	1,116	2,268	2015년
합계		75,100	287,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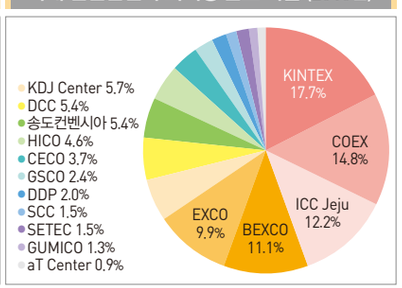
자료 : 송용주(2016), 'MICE산업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서 인용하여 수정

- 전시장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KINTEX(고양) 108,483m^2로 전체 컨벤션센터의 37.7%를 차지하며, BEXCO(부산) 46380m^2로 16.1%, COEX(서울)가 36,007m^2로 12.5%, EXCO(eorn)가 22,159m^2로 7.7%를 차지함. SCC(세종)는 2,268m^2로 0.8%를 차지

국내 컨벤션센터 전시장 분포 비율 (2016년)



국내 컨벤션센터 회의장 분포 비율 (2016년)



- 회의장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KINTEX(고양) 13,303m^2로 전체 컨벤션센터의 17.7%를 차지하며, COEX(서울)가 11,123m^2로 14.8%, ICC Jeju가 9,133m^2로 12.2%, BEXCO(부산)가 8,351m^2로 11.1%를 차지함. SCC(세종)는 1,116m^2로 1.5%를 차지
- 최근에 건립되거나 건립예정인 컨벤션센터는 연면적 23,000m^2~97,600m^2 규모로 사업비는 340억원부터 3,400억원까지 폭 넓게 나타남

주요 컨벤션센터 건립비 및 규모

구 분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2)]	수원 컨벤션센터[3)]	충남 컨벤션센터[4)]	대전국제 컨벤션센터[5)]	청주전시관[6)]
사업비	180억원 (국비 40억원, 도비 28억원, 시비 112억원)*	3,399억원 (건축비 2,359억원, 토지비 1,040억원)	1,939억원 (도비 1346억원, 시비 593억원)	970억원 (국비 153억원, 시비 817억원)	937억원 (도비 468억원, 시비 468억원)
부지면적	89,083m^2	50,005m^2	45,000m^2	27,927m^2	42,120m^2
연면적	23,179m^2	97,602m^2	51,900m^2	40,970m^2	40,176m^2

*주 : 컨벤션본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로 전시관 건립 시 매입한 토지 사용으로 토지매입비 없음. 전시관은 2004년도 건립하였으며 총사업비 161억원, 토지매입비 116억원, 건축비 45억원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건립예정)[7)]

- 위　　치 : 덕진구 기린대로 전주종합경기장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8)] 예정
- 사 업 비 : 롯데쇼핑(주) 기부채납
  - 종합경기장 전체부지를 대상으로 '1963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시민의 숲 조성(정원의 숲, 예술의 숲, 놀이의 숲, 미식의 숲, MICE의 숲 등 5개 숲) 및 호텔 · 백화점 · 영화관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예정
- 전주종합경기장 전체부지(12만 2,975m^2)의 약 33.1%(4만 800m^2)에 호텔과 전시컨벤션센터 및 판매시설인 백화점, 영화관 건립 예정[9)]
  - 백화점, 영화관의 판매시설은 전체 부지(12만 2,975m^2) 중 18.7%에 해당하는 2만 3,000m^2 규모의 부지에 건립(서신동 롯데백화점, 영화관 이전)
  - 1만 7800m^2 부지*에 200인 이상 숙박이 가능한 호텔과 5,000m^2 규모의 전시장, 2,000명 수용이 가능한 국제회의장, 중소회의실 10실 건립 예정
    * 호텔 및 컨벤션 개발의 구체적 방향은 미정
  - 전주종합경기장 전체 부지는 전주시가 소유하게 되며,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는 판매시설 부지만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쇼핑에 50년 이상 장기임대

2) 정명희 · 김광국(2013), 전라북도 MICE산업 육성전략, 전북연구원필요가 있는 지역
3) 수원시청 컨벤션건립팀 당당자 통화를 기반으로 작성
4) 충 청 남 도 보도자료, 2019. 1. 9
5)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17. 12. 6
6) 충 청 북 도 보도자료, 2018. 11. 20
7) 전 주 시 청 보도자료, 2019. 4. 18
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4/239228/
9) 매일경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7_0000623608

– 민간사업자인 롯데는 백화점과 영화관 운영을 통해 수입 창출, 그 대신 호텔을 건립해 20년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전시컨벤션센터는 곧바로 기부채납
– 전주시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약 1,500억원(롯데쇼핑 1,000억원, 전주시 500억원)의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나 추후 용역사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
– 현재 1단계 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에 국비 100억, 시비 100억 총 200억 사업비 책정
–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인근(12만 3천㎡)에 새로 건립 예정(육상경기장, 야구장), 총 사업비는 900억원(시비 630억원, 지방채 270억원)

Ⅲ. 세종시 회의수요 예측

- 세종컨벤션센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래 회의수요를 예측함
- 선형예측 모형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를 가정
- 연평균성장률 모형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성장률 기반으로 회의수요를 예측
  – 지난 4년 동안의 연평균성장률은 10.4%

회의개최 건수 예측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20	2025	2030
선형예측 모형	478	587	635	637	768	1,031	1,293
연평균성장률 모형	478	587	635	637	777	1,276	2,095

주 : 2018년 이후 데이터는 예측치

- 선형예측 모형을 적용할 경우 회의개최 건수는 2020년 768건, 2025년 1,031건, 2030년 1,293건으로 예측
- 연평균성장률 모형을 적용할 경우 회의개최 건수는 2020년 777건, 2025년 1,276건, 2030년 2,095건으로 예측

Ⅳ. 정책제언

마이스산업 생태계와 컨벤션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 구성,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기업육성 및 유치 필요

마이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벤션뷰로의 설립

- 컨벤션뷰로는 회의를 기획하고 유치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컨벤션센터의 운영과 연계 필요
- 마이스산업과 컨벤션 분야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을 운영하고 국제회의를 기획하기 위한 컨벤션뷰로의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기반으로 한 대안

- 컨벤션센터의 핵심기능을 설정하여 회의시설과 전시장 규모 설정 필요
- (1안) 회의시설 중심 컨벤션센터
  – 공공행정과 연구시설이 집중된 점을 감안하여 회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검토
- (2안) 회의시설과 전시장을 갖춘 컨벤션센터
  – 회의시설과 함께 전시공간을 갖춘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1.4배 규모로 추진

건립방안을 기반으로 한 대안 제시

- 컨벤션센터 건립방안에 따라 공공투자 · 공공용지형, 공공투자 · 상업용지형, 민간투자 · 상업용지형으로 구분
- (1안) 공공투자 · 공공용지형
  – 공공의 재원을 통해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추진
  – 국비와 시비 확보가 필요하며 적합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 예상
- (2안) 공공투자 · 상업용지형
  – 공공의 재원을 통해 상업용지를 활용하여 추진
  – 국비와 시비 확보가 필요하며, 호텔 또는 백화점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가능
- (3안) 민간투자 · 상업용지형
  – 민간의 재원을 통해 상업용지를 활용하여 추진
  –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며 호텔 또는 백화점 부지를 활용하여 추진
  – 상업시설, 숙박시설을 동시에 구축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

접근성, 지원시설, 추가적인 활동을 고려한 입지 선정 필요

- 컨벤션센터는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참가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 중요
- 숙박시설, 쇼핑, 문화시설, 예술공간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곳에 대한 고려를 통해 추가적인 활동 유도

마이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육성 및 유치

- 마이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 필요
- 회의기획, 관광, 숙박 등 관련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필요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 및 운영 방안*

*남영식(2019),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 방안 연구'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함

남 영 식

Ⅰ. 지역화폐 개념 및 도입 현황

지역화폐 개념[1)]

-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을 의미함
- 지역화폐는 도입 목적 또는 지향점에 따라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및 '공동체 활성화형'으로 구분 가능함
  -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지역화폐) 구성원 간에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법정화폐와 교환이 가능하여, 공동체 활성화형 지역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 활성화가 수월함
  - (공동체 활성화형 지역화폐) 구성원 간에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며 법정화폐와 교환이 되지 않아, 유통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지역화폐 유형별 주요 사례

-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지역화폐 : 브리스톨 파운드(영국), 지역사랑상품권 등
- 공동체 활성화형 지역화폐 : 레츠(LETS) 등
- 혼합형 : 킴가우어(독일) 등

지역화폐 도입 현황

-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지역화폐 도입 현황[2)]
  -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표적인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지역화폐에 해당함
  - 2019년 3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기 도입한 지자체가 69곳, 도입 예정인 지자체가 71곳에 이를 정도로,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행정안전부는 재원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금액의 일부를 지원중이며, 이에 더하여 지자체별 추가 지원이 차별화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며,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함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현황(2019년 3월 기준)

구분	기 도입	도입 예정
부산	–	동구(1)
인천	인천광역시(1)	–
광주	남구(1)	광주광역시(1)
대전	–	대덕구(1)
울산	–	울산광역시(1)
경기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가평군(4)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27)
강원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11)	강릉시, 동해시(2)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8)	충주시, 청주시(2)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9)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 보령시(5)
전북	군산시, 김제군, 장수군, 임실군, 완주군(5)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정읍시, 익산시(8)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10)	진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화순군(7)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12)	구미시, 영주시, 예천군, 영천군, 봉화군, 경산시(6)
경남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8)	경상남도,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거창군, 함양군, 밀양시, 진주시, 통영시, 창녕군(10)

자료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지방재정경제실 지역사랑상품권.

- 공동체 활성화형 지역화폐 도입 현황
  - 공동체 활성화형 지역화폐의 경우 유통 활성화보다 지역사회 공동체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지역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경우가 많음
  - 지자체별로 세부 운영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짐

공동체 활성화형 지역화폐 주요 도입 현황

지 역		지역화폐명	도입 시기	특 성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품앗이	1999년	• 현금과 동일 가치
	서초구	서울 서초품앗이	2009년	• 1시간=1 품
	은평구	서울 은평품앗이	2011년	• 현금과 동일 가치
	마포구	마포공동체경제 네트워크	2015년	• 현금 환전 가능
	노원구	노원(NW)	2018년	• 1시간=700 노원 • 기부액 10%만큼 발행
경기	과천시	경기 과천품앗이	2000년	• 1시간=1만 아리
	광명시	광명지역품앗이 광명그루	2004년	• 100원=100 그루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레츠	2008년	• 1시간=1만 누리
	수원시	수원 구름 위의 도서관	2014년	• 별을 통해 책 대여
대전	–	대전 한밭레츠	2000년	• 현금과 동일 가치 • 연회비 2만원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 사랑고리은행	2002년	• 1시간=1 고리=약 5천원
부산	사하구	부산 사하품앗이	2007년	• 1000송이=1000원

자료 : 최준규 · 윤소은,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제325호, 2018 자료 재구성

1) 지역화폐 개념 내용은 최준규 · 윤소은(2018) 참고.
2)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지방재정경제실 지역사랑상품권 참고.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 및 운영 방안*

II. 세종시 지역화폐 특성 및 운영 방안

세종시 지역화폐 특성

- 세종시의 지역화폐 도입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성 강화임
  - (현재 세종시에서 준비 중인 지역화폐는 타 지자체에서 기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성격을 가지며, 공동체성 강화보다는 지역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지역화폐와 유사함
- 세종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조례 제정 시기) 2019년 9월 30일
  - (조례 구성) 총칙,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칙의 4장과 각 장에 기술된 27개 조항으로 구성됨
- 세종시 지역화폐는 도입 첫해인 2020년에 7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임
  - (정책 발행) 정책 발행은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세종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등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 발행으로 지역화폐를 48억원 발행할 예정임
  - (일반 발행) 일반 발행은 개인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발행으로 지역화폐를 22억원 발행할 예정임
- 세종시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우선 발행한 뒤,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임
  - (카드형 지역화폐) 카드형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소비 수단이므로, 도입 초기 단계에서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행 형태임
  - (모바일형 지역화폐)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문제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QR코드 기반의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 있음
- 세종시 지역화폐는 관련 조례에 의해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구입 금액의 10% 이내로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음
  - (상시 할인) 상시 구매 시 구입 금액의 6% 할인 혜택
  - (특별 할인) 특별 기간(도입 시기 및 명절 등)에 한하여 구입 금액의 10% 할인 혜택

※ 할인 혜택의 기준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혜택 범위) 법인 및 가맹점은 세종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으나 구입 시 할인 혜택 제공은 없으며, 개인 구매자의 할인 혜택 범위는 개인당 50만원/월 및 500만원/연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카드형 지역화폐는 세종시 내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기존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도입될 모바일형 지역화폐는 QR코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 한해서만 활용 가능함
  -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설의 성격 상 부적절한 곳(대규모 유통업체, 유흥업소, 사행성 시설 등)은 관련 조례에 의해 가맹점으로 허용되지 않음

세종시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방안

- 세종시는 온 · 오프라인 가맹점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 정책 수당으로서의 지역화폐 활용, 지역화폐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자인 소비자들이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여 사용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 있음
  - 하지만 지역화폐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세종시 내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
  - 세종시 정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수당 지급 수단으로 세종시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함
- 지역주민들의 지역화폐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사용처에 대한 제약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익숙한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지역화폐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가 현실화 될 수 있음
- 지역 내 가맹점들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가맹점들은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제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있음

세종시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 운영을 위한 지자체 대응 방안

-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소비 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 내에 필요하지만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 있음
- 지역 생산자를 고려한 지역화폐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생산자를 고려한 지역화폐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화폐 운영 자료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화폐 운영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이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입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 및 운영 방안*

Ⅲ. 세종시 지역화폐의 단계적 운영 방향

세종시 지역화폐의 단계적 운영 방향

- 도입기에는 가맹점 확보 및 홍보를 통해 카드형 및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안착시키고,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개선기에는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활용 목적 및 지역상황에 맞게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개선함
- 성숙기에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세종시 지역화폐의 단계적 운영 방향성

세종시 지역화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세종시 지역화폐가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지역화폐는 그 목적이 유통 활성화인지 지역 공동체성 강화인지에 따라 운영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시기별로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세종시가 지역화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한 뒤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형 지역화폐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세종시만의 지역화폐 활용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타 지역 방문자들의 세종시 지역화폐 활용 유인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함
  - 지역화폐 도입 초기 단계에는 세종시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역화폐 활용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타 지역 방문자들의 세종시 지역화폐 활용 유인 제공 방안 또한 모색될 필요 있음
  - 타 지역 방문자의 세종시 지역화폐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 다른 형태(기념품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세종시 저출생 대응 정책 진단과 향후 과제

*최성은(2019), '세종시 출생 지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

최 성 은 |

Ⅰ. 세종시 저출생 대응 정책 진단의 필요성

세종시 정책 점검의 필요성

- 정부는 2018년 11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재구조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기존의 출산율 목표 설정방식에서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음
- 또한, 세종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합계출산율의 증감 변동에 민감히 반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의 높은 합계출산율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임
- 이에 정부의 변화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을 고려한 〈2020년 세종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재구조화 작업이 요청됨에 따라, 세종시 현재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영역별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정부의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재구조화 로드맵〉 개요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12월에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재구조화 로드맵(이하, 재구조화 로드맵)〉을 발표함
- 기존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재구조화 로드맵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재구조화 로드맵의 차이점

구 분	차 이 점
패러다임 전환	•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여, 기존 출산장려 기조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를 강조 • 특히, 기존 결혼 가족, 다자녀 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
핵심과제 제시	• 국정과제 및 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존 과제 정비 및 핵심 과제 발굴을 진행
중장기 연계	•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수립으로의 이행단계를 위한 중장기 핵심과제를 제시

Ⅱ. 세종시 출생 지표 변화 추이

세종시 주요 인구 현황 및 장래인구 추계

- 세종시 인구는 전국 및 타 시 ·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됨. 통계청(2019)의 〈시 · 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2017~2047)〉에 따른 출생, 평균 연령, 고령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세종시 주요 인구 현황 및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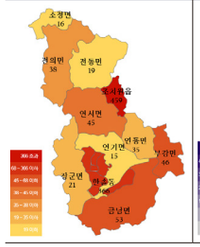
구 분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2025년	2047년	특 징
인구수		314,126명(2018년 기준)			• "출범 이후 지속적 인구증가 •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이주민 비율 약 70%이상 예상)
		27 만 명	42 만 명	59 만 명	
출생관련	출생등록아수	3,793명(2018년 기준)			• 합계출산율 전국 1위 • 유일한 출생아수 증가도시 • OECD 기준 저출산 도시(2.1명 이하) • 자연증가율은 '12년(2.3명) 대비 '17년(10.4명)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증가폭도 점차 감소하고, 자연 증가율도 (-)방향으로 변화될 전망임
	합계출산율	1.57명(2018년 기준)			
		1.67명	1.53명	1.73명	
	조출생률	13.4명(2017년 기준)			
	자연증가율	0.95%	0.59%	△0.28%	
중위연령		36.6세	40세	50.1세	• 세종 전체 36.7세('18), 동 지역 32.9세

노인인구	2 만 명	5 만 명	17 만 명	•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장 낮은 도시 •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추세 • 고령화 지속(고령화 도시) • '4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 전망
노인비율	9.2%	11.6%	27.8%	
총부양비	41.6%	43.4%	70.3%	
노년부양비	13.1%	16.7%	47.3%	
노령화지수	46.0	62.5	205.0	

자료 :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시 · 도편): 2017~2047년〉
세종시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19), 〈연도별 출생등록아수(2012~2019)〉자료 재구성

세종시 읍 · 면 · 동별 출생등록아수와 합계출산율 변화 (단위 : 명)

출생등록아수 변화



자료 : 세종시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19),
〈연도별 출생등록아수(2012~2019)〉자료 재구성

주 : 합계출산율은 5세 연령별 출산율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직접 산출함
자료 : 통계청(2019), 〈인구동향조사〉 자료 재구성

- (세종시 출생등록아수 변화) 세종시의 연말 출생등록아수를 보면 매년 출생등록아수가 증가, 특히 2014년에서 2015년이 1,341명이 증가하여 약 2배 증가([표 3] 참조)
  - (읍 · 면 · 동별 출생등록아수 특징) 2013년까지는 조치원읍이 가장 많았으나, 2014년부터 동 지역을 중심으로 출생등록아수가 증가함. 동 지역의 출생등록아수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면 지역은 매년 출생등록아수가 가장 적음
-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변화)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서울, 대전 등 대도시에 비해 높고, 충북, 충남 등 인근 지역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인구유입이 크게 확대된 2015년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1.893명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이후 전국 시 · 도 중 제일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세종시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1.566명을 기록하여 가장 높았던 2016년에 비해 0.327명 감소하여 타 시 · 도에 비해 감소폭이 큼. 그러나 출생아 수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임

Ⅲ. 세종시 저출생 대응 정책 현황

세종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재구조화 로드맵 매칭 분석 결과

- 분석 대상 : 〈세종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자료(2018년, 2019년)
- 세종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과 과제 현황(2019년 시행계획 자체사업 기준)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 부문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와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부문임. 해당 부문에 해당하는 총 과제 수는 33개임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교(2018년 vs. 2019년)

부문별	'18년 당초	'18년 확정(a)	'19년(b)	증감(b-a)	증감 %	과제수
합 계	46,821	46,635	52,955	6,320	11.9	54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38,049	38,201	43,622	5,421	12.4	30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8,762	8,424	9,323	899	9.6	21
인구변화 적극 대비	10	10	10	–	–	3

자료 : 세종시 여성가족과(2019), 〈2019년 세종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종시 시행계획과 재구조화 로드맵 매칭 분석 결과 (단위 : 개)

구 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인구변화에 적극 대비	
	비용	시간	돌봄	문화	기반	사회시스템	지역
합 계	6	1	11	5	11	0	3

주 : 로드맵 매칭작업 결과(총 37개)는 세부부문에 중복 적용을 허용하여 과제 수(33개)보다 많음

- 저출생 대응 분야에 속하는 33개의 자체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조화 로드맵 역량집중과제 추진영역별 세부 부문의 매칭을 시도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각 세부 부문별 과제 매칭 결과는 다음과 같음. 비용 부문 6개 사업, 시간 부문 1개 사업, 돌봄 부문 11개 사업, 문화 부문 5개 사업, 기반 부문 11개 사업
  - (인구변화에 적극 대비) 지역 정책 부문에 3개 사업

Ⅳ. 향후 과제

- 세종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영역별 정책 제안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분야' 및 '인구변화에 적극 대비 분야'에 대한 향후 과제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재구조화 로드맵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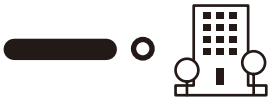
과제 구분 부문별	과제 구분 세부분야	제안 내용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비용	• 세종시는 출산 ·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와 다자녀 지원 분야 관련 정책 발굴이 필요함
	시간	• 세종시는 시간 부문의 자체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함 • 민간 기업의 유연근무제 참여 확대 노력 필요 •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모델 확산, 시간권 보장, 남성 육아참여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돌봄	• 세종시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음 • 보육교사 처우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향후 수혜자(아동, 부모)의 서비스 품질 평가 제도와 더불어, 환류 시스템 마련이 요청됨 • 세종시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
	문화	• 세종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적 수용을 위해 선제적인 캠페인, 홍보, 다양성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므로 부서간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추진체계와 지원이 요청됨 •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 후 확산 필요
	기반	• 기반 부문의 2019년 시행계획 과제는 제외 필요 대상 사업 검토 후 일부 조정이 요청됨 • 제외 검토 대상 사업 : 대학등록금 경감, 혼례문화 개선사업,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등
인구 변화에 적극 대비		• 인구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인구 교육 실시 필요(교육청과의 협업) • 중 · 장기적 인구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http://www.dsi.re.kr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발행인. 박재묵 편집인. 이수진 등록일. 2017. 10. 30. 등록번호. 대전중, 바00008

SEJONG

INSIGHT

세종인사이트